

9장 벤야민과 언어철학 2

◆1교시: 벤야민의 언어철학

▲ 벤야민에게서의 언어행위

오늘은 언어철학의 부분을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남으면 그때는 언어철학 부분하고 함께 생각해야 될 벤야민(1892~1940)의 문예이론 특히 소설, 벤야민은 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산문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철학 부분은 언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벤야민의 철학에 가장 베이스를 이루고 있는 소위 그 인간학적인 그런 측면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는 미메시스(mimesis)의 이론과 연계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어철학 부분하고 미메시스라는 이름에 그런 인간학적 그런 사유가 연계되고 있는 그 부분이 벤야민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물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그런 태도가 되고 있는 독서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소위 관상학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보기’라고 얘기하는데, 벤야민은 ‘보기’의 철학을 한다고 제가 일찍이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바로 이 ‘본다’는 것과 ‘읽는다’는 것이 벤야민에게는 다른 행위가 아니라 동시적인 행위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과 ‘읽는다’는 것이 벤야민에게는 다 같이 언어행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언어하면 쓰기 아니면 읽기, 그 정도에서만 그치고 있는데 요즘 많은 식으로 세상읽기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보기’는 궁극적으로 사실 ‘읽기’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 눈이 인간을 지배하는 지각기관이 된 까닭

우리가 인간에게서 가장 발달하고 있는 그런 지각기관이 다름 아닌 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 눈이 가장 우리에게 5관이 있는데 왜 눈이 가장 그렇게 지배적인 지각기관이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다방면으로 물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인간에게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열등한 지각으로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 다름 아닌 접촉, 촉감인데 만지는 것. 그래서 이 접촉, 촉감, 그리고 촉감보다 어쨌면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촉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만지지는 않지만 더 강력하게 이런 직접접성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그 냄새인데 바로 후각이요.

그래서 후각이 가장 열등한 감각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바로 그러한 관계 내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든 아니면 후기 구조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에서 후각

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얘기 드리면 왜 그 뭘죠? 신화 속에서나 아니면 특히 그 호모의 <오디세이>나 <일리아드> 같은데 보거나 이러면 그 신화의 얘기, 신화와 아니면 서사 속에서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민족 타부의 영역에서 ‘돼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금기시 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돼지’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끊임없이 여러분 돼지를 축사 같은데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큰 코를 가지고 계속 땅의 냄새를 맡으면서 쿵쿵 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게 사실 돼지이고, 그래서 바로 이 돼지라고 하는 그 짐승에 대한 타부가 돼지가 가장 후각적으로 본능이 발달해 있는 그러한 동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타부 시 되는 그런 경향도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음식문화권에서 음식문화사적으로 많이 얘기할 수 있죠. 어떤 동물이 지나치게 타부화 되면 그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돼지를 타부화 시키면 바로 그 돼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생산될 수 있는 여타 음식물들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존하려고 그걸 타부화 시켜가지고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든 뭘 부여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먹이사슬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화사적인 음식문화사적인 그런 측면들도 당연히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지각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후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프로이드 식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직립하면서 잃어버린 감각이 바로 후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4발 동물들은 이 대지의 냄새를 항상 맡게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성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4발 가진 짐승들은 항상 자기의 성적기관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그런 성적인 냄새, 그리고 또 상대방의 성적인 냄새를 늘 민감하게 체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말하자면 일련의 어떤 성적 소통을 이루어가고 이러는 것이 있는데

인간은 이제 원래 4발 동물이었을 때 바로 거의 비슷한 생존방식을 지니고 있었더라면 인간이 일어서면서 소위 하늘을 보게 되고, 그 하늘을 통해서 바로 텅 빈 하늘을 통해서 상상력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바로 그와 동시에 지적인 손이 나오면서 지적인 능력이 손을 움직이면서 지적인 능력이 발달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소위 이 대지의 냄새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적 후각의 기능이 퇴보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얘기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발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각이다.

▲ 시각이 언어행위가 되는 과정

시각은 뭘니까? 철저하게 다른 지각기관과 달리 접촉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안전지대를 가지고 있는 아도르노 식으로 얘기하면 심미적 거리를 확보해주는 기관이죠.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이 시선을 통해서 인간은 대상으로부터 자기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일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안전거리 밖에서 바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

러 가지 대상관계라든지 자기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통제의 첫 번째 매체가 바로 일어서면서 만들어지게 되고 있는 어떤 상상력을 통한 이미지, 그 이미지를 통해서 바로 그 소외화 된 그런 사물들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미지라고 하는 초보적인 단계가 끝나게 되면 언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은 언어를 통해서 바로 그 환경과 아니면 자기 주변의 사물들과의 관계를 통제해 나가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도구화시키는 그리고 지배하게 되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바로 시각행위라고 하는 것과 '본다'는 행위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언어행위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읽기인데 요, 기호론적으로 얘기하면 기호화하는 그런 행위인데 그래서 그 행위가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엄정한 의미에서 본다는 말 자체가 사실 어째가 굉장히 있죠.

우리가 진짜 보는지 아니면 우리가 사물을 진짜 보는지 아니면 롤랑바르트 식으로 얘기하면 사물을 의미로 읽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과연 눈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보는 건지 아니면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사실 맹인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사진론>같은 데서 그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회화 이미지와 사진 이미지라는 것을 구분을 하면서 회화 이미지는 철저하게 심미적 거리를 유지한 채 대상이 이미지화되는 그런 산물이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화는 결코 보는 행위를 통해서 그려진 이미지가 아니라 그건 바로 읽는 행위를 통해서 그려진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눈 자체가 이미 일종의 그 독서기능화 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컨대 사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뭐니까? 눈의 기능으로 사물을 포착하는 게 아니죠. 메커니즘에 의해서 기계의 눈으로 사물을 포착하기 때문에 바로 이 사진 이미지 속에는 회화 이미지에 들어 있지 않은 그리고 회화 이미지로 만일 재현을 했더라면 분명히 빠져 있을 그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 안에... 그래서 바로 그 롤랑 바르트가 사진 이미지를 바로 기호론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의미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 사진 이미지 속에 들어 있는 소위 기호화되어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코드화되어 있지 않은 것, 이런 것들과의 만남을 바로 아주 독특한 개념인 폰크툼이다.

그런 개념으로 설정을 하고 그걸 통해가지고 모든 것이 기호화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횡단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폭파시킬 수 있는 탈코드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이미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아마 오늘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롤랑 바르트 얘기를 잠깐 제가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러한 <사진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되고 있지만 그러나 바르트의 어떤 <텍스트론>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면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사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벤야민 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벤야민의 세 가지 언어

어쨌든 지난 시간에 뭐 제가 그 벤야민의 논리를 따라서 벤야민이 근본적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 세 가지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의 언어와 그 다음에 인간, 아담의 언어와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본래적 인간의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담의 언어와 그 다음에 사물의 언어로 3개를 구분을 하고, 이 3개의 언어 관계 속에서 바로 그 아담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의미부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좀 다시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물의 언어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중간, 벤야민에게는 나중에 우리가 매체이론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이 매체, 벤야민이 수용하는 그런 방향성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게 벤야민의 언어 철학이나 역사철학이나 문예이론이라는 건 이전에 많이 다뤄졌습니다만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제 매체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벤야민을 많이 수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 나중에 매체이론 쪽에 들어가면 사진이나, 영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아우라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벌써 여기서도 벤야민이 바로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의 특수성을 신의 언어와 사물의 언어 사이를 매개하는 그러한 미디어의 역할로서 지금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 아담의 언어가 지니는 자연성과 역사성

지난 시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인간이 결국은 사물, 인간의 언어는 원래 사물에게 이름을 주는 네이밍하는 이름 언어다, 혹은 명명언어다, 이렇게. 서양철학에서 이름이란 뭐냐,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프루스트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도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붙어 있는 것처럼 지명 또 인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명, 지명의 그런 The name of place. 그 지명이 바로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의미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떤 장소의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장소를 하나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호로서 이름을 주는 게 절대 아니죠. 우리가 본래 이름을 주고, 어떤 장소에 대해서 이름을 주고 있는 것은 ...

예컨대 그 지역을, 그 장소를, 그 특별한, 그 장소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는 어떤 주변 환경의 요소라든지 그리고 또 그 장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바로 다시 말하자면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자연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장소만의 그런 special한 그런 의미를 그 이름 속에 담고 있죠. 동시에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 장소에게 이름을 주는 행위 자체가 그곳이 소속되어 있는 자연이라고 하는 어떤 관계망 속에서만 주어지는 특수성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여하는 그 사람이 그 자연과 바로 맺고 있는 어떤 관계성이

그 안에 동시에 투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의 장소 속에, 장소가 하나의 이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인식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인 바로 그러한 것들이 서로 조화된 상태로 들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장소의 이름 속에는 바로 두 개의 의미 향이 들어 있게 마련이다.

하나를 뭐냐 하면 바로 인간도 포함되어 있는 자연관계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동시에 바로 그 자연관계성과 분리되어 있지만 그것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어떤 역사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이름 속에는 자연성과 바로 이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로 인간이 처음에 언어 행위를 시작하고, 그리고 보는 행위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것은 동시에 객관적이면서 바로 그 주관적인 그런 행위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우리가 보고 그것에 대해 이미지를 갖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이름을 주던 거기에는 바로 사물 자체 아니면 그 대상 자체의 어떤 본질성과 그리고 그 본질성에 대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주관적 어떤 그런 관계, 그것이 그 안에 동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서구문학 속에서나 아니면 특히 문예 독문학 쪽 경향이나 아니면 철학에서도 이 이름이라고 하는 어떤 name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고유명사이든 아니면 그것이 지명이든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로 벤야민이 왜 하필이면 아담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명명언어라고 했겠는가, 라고 지칭했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까만 바로 소위 단어라고 하는 것, 혹은 기호라고 하는 것과 아주 확연하게 구분되는 바로 그러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언술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단어행위나 특히 기호행위는 뭐냐 하면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었던 인간과 인간 외적인 것의 그런 관계성이 소멸됐을 때 소진되었을 때, 그리고 더 이상 소통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언어행위, 그것을 이제 단어라는 이름으로 또 개념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서는 이제 기호라고 하는 sig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얘기가 되었다고 보게 되면 제가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벤야민이 보고 있는 그런 언어에서 이름에서 단어로, 단어에서 기호로 건너가고 있는 언어의 변천사는 바로 벤야민의 시선에 의하면 바로 이름 언어의 타락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 언어가 타락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2교시: 벤야민의 언어철학

▲ 인간 언어의 중요성

바로 이게 벤야민이 거기서 이름언어라고 인간의 최초의 언어를 이름 지었을 때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인간 언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하면 인간이 바로 사물에게 이름을 주고, 그 이름을 줌으로써 사물 속에 내재해 있는 신의 창조적 정신성이 사물로 하여금 드러나게 만들고, 그것을 이름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드러나게 만들면서 바로 그 이름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인간도 신으로부터 부여 받은 정신성이 동시에 드러나도록,

말하자면 어떤 이름 주는 행위를 통해서 사물의 신성을 드러나게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어떤 그런 신성을(신성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정신성이라고 벤야민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신성이 드러나는 그래서 어떤 객체에게 객체를 지시하면서 그 지시 관계가 단순한 지시하는 나의 투사만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물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현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에서는 일상어로 많이 쓰이는데 Expression이라는 말은 굉장히 또 복잡한 의미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그래서 표현은 사실 언어는 표현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학 언어가 표현 언어를 지향할 하지만 바로 이 문학 언어가 과연 표현 언어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끊임없는 문예담론의 사실 문젯거리입니다.

▲ 문학 언어의 특수성

표현 언어는 오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만 할 수 있죠. 그것은 신체입니다. 신체는 바로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스스로... 춤으로 예를 들면 모든 예술의 기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해 내고 있는 이런 Dance가 바로 표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언어는 결국 이 Dance를 닮아 가려고 한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언어는 바로 왜 태어났냐 하면 신체와 분리되면서 태어나는 게 언어이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언어가 지향하는 바는 다시 신체와의 결합인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이것 때문에 무슨 메타포다.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예론적 그런 스타일들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독특한 그 문학 언어의 특성이죠. 기존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언어를 어떻게 변형시킴으로 해가지고 그 분리를 뛰어넘어서 바로 신체와 만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바로 소위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이든 소설이든 특히 시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그 문학 언어의 특수성이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표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쉽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게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실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미 언어 동물이 된 다음에야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잃어버린 어떤 고향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

어요.

▲ 벤야민이 생각하는 태초의 언어

그런 의미에서 바로 벤야민이 얘기했을 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만의 언어이면서 동시에 말하자면 표현의 그 기능을 지니고 있는 직접적 언어, 우리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직접적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직접적이다. 언어가 더 이상 매개가 아니고, 지시가 아니고 바로 신의 언어가 그렇듯이 뭐, 되어라 하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름 언어, 신의 언어의 특성이 Realization이라는 것. 부르면 그게 생겨나는 건데 실현되는 건데 인간의 언어는 이제 Realization의 그런 기능은 못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아담의 언어는 Realization 된 바로 그것을 알아보는 행위다.

인식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조는 못하지만 알아본다. 그게 바로 아담의 언어가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알아 본다는 것과 인식한다는 이 행위, 이 인식의 대상이 바로 신에 의해서 인간에게도 부여되어 있고, 사물에게도 부여되어 있는 그 정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보는 일이고, 그걸 알아보는 그 행위가 바로 이름 주는 행위일 때 그 이름 주는 행위를 통해서 그 이름을 주는 인간이나 이름을 받는 사물이나 바로 소통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럼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소위 신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와 사물의 언어가 하나의 Communication의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벤야민이 가지고 있는 예컨대 태초의 언어입니다.

태초의 언어. 그게 바로 인간의 언어인 최초의 언어인 바로 아담의 언어가 바로 이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벤야민은 능력이나 기능이나 얘기하지 않고, 선물이라고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은총이라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봤죠. 얘기를 많이 하죠. 독일어로 Gabe라고 그러는데 부여받은 선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로부터 인간이 특별하게 부여받은 은혜죠. 그래서 은총이죠. 그래서 언어행위는 바로 인간에게 신에게로부터 아주 특별하게 부여받은 일종에 은총의 그런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언어행위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그런 구약의 구절들을 나름대로 본인의 언어론적으로 이렇게 재해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이제 벤야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초의 언어에 일종의 관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아담의 언어의 타락과 선악과의 문제-최초의 죄의 증거는 부끄러움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언어의 타락인데 그러니까 아담의 언어의 타락인데 바로 이 타락의 문제를 벤야민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악과의 문제, 선악과의 사건과 연결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뱀이 유혹을 하고, 그리고 하와가 사과를 따먹고, 그거를 또 아담에게 먹이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신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럼으로

해가지고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에덴이 어느 동산이냐? 어떤 세계냐? 라고 물어보면 뭐, 언
어론적으로 벤야민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소통 관계가 있었던 유지되었던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내에서 아주 우리가 《성경》 구절적으로 얘기하면 하아와 아담이 신의 진
노를 사고, 아담아 너 어디 있냐? 하고 물어 봤을 때 물어보고, 그리고 또 처음에 사과를
먹고 났을 때 어떻게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제일 먼저 알아본 게 뭘니까? 자기 신체죠. 그
렇죠? 자기가 벗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사실,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죄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바로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문제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중요하게 사실은 좀 다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
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어쩐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돼도 어쩐지 부끄러울
때가 있는.... 바로 이 부끄러움이 일종의 무의식적이고, 잠재적이고, 어떻게 벗어버릴 수 없
는 그런 일종의 그 말하자면 《성경》 식으로 얘기하면 범틀입니다. 범틀. 율법.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일상의 논리를 따라서 나는 철저
하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갈 때면 어쩐지 부끄럽고, 어쩐
지 좀 찻찻스럽고, 이런 것들이 있잖습니까?

이 ‘어쩐지’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바로 일종의 그 검열기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성화되고, 아무리 논리적인 그런 인간이 되고, 경제적인 인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
지 사실 우리를 인간에게끔 유지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그 그야말로 Last instance가 있는
데 마지막 종교점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부끄러움 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부끄러
움을 모르게 된다면 이건 진짜 종말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밖
에 없습니다. 동물이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동물은 전혀 부끄러움 없습니다.

부끄러움은 인간에게 본래 있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동물에서 인간이라는 이름의 로
맹가리 같은 그런 사람은 허구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이라는 거대한 허구, 우린 인간, 인간,
그러지만 인간이 있습니까? 참, 우리 소설가들은 참 그런 점에서 radical한 데가 있어요. 우
리는 너무 당연하게 나는 인간이야, 그리고 인간주의, 휴머니즘에 대한 그런 비판들이 아주
가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린 다 인간이라고 그러지만 인간이 있습니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과
연 있는가? 인간이 Fiction인지? 아니면 인간이 어떤 라캉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어떻게 보
면 그게 Real인지 실제인지 아니면 The symbol인지 아니면 상징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
면 그야말로 Imaginative한 건지 상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건지, 자기가 인간이라고 투사
해 놓고 그거를 모범으로 삼고 나가는데 끊임없이 그랬을 때 인간의 문제 이런 것들도 얼마
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 상상이나 아니면 상징이라는 게 원래 그렇
죠.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을 이미 된 것으로 만들어 놓고, 사실 좋은 의미입니다.

상상의 대상이나 아니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을 미리 된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뭘니까?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참 저도 인간이라는 말을 쓸니다만 좌우지간 묘한 것이 바로 그걸 이용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그게 지배도구가 되어 버린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상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그게 실제인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맹목적으로 순응하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그 바로 그러한 것처럼 어쨌든 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그런 인간의 준거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오늘 우리나라 우리 사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까만 점점점점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라져 가는 사회다, 라고 한다는 식으로 Definition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죄 지으면 다 고개 숙이고 그랬는데 요새는 죄 지으면 전부 머리 들고 다니는 게 뭐, 그게 아주 그냥 일종의 유행화 되어 버려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소실되어 가는 사회다. 이거는 말하자면 인간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실종되어 가는 그런 사회다, 그럼 뭐만 남을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참 끔찍하죠.

사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의 문제, 저는 이 부끄러움의 문제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얘기가 자꾸 다른 데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제가 오래전에 어떤 친구를 하나 이렇게 그때 참 가슴이 아팠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아주 별로 소식이 없던 굉장히 옛날에 친했는데 별로 소식이 없던 친구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자, 그래? 만나자. 술 한 잔을 막 먹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슬그머니 누구나 그렇지만 돈 얘기를 꺼내는 거죠.

지금 사정이 이러이러 하니까 좀 융통을 해줄 수 있겠느냐, 라는 식의 그런데 저도 그 상황에서 저도 경제적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받지 못할 돈을 내가 즉각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막 술 먹으면서 그러냐, 네 사정이 어떤지 어찌고저찌고 하면서 끊임없이 머리를 두 개를 돌리다가 결론은 사실 있긴 있었는데 그런데 미안하다,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렇다고 그 친구도 이미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겠죠. 오죽 급했으면 그랬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김진영이는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했으니까 또 그랬을 텐데 ... 다른 친구한테 그렇게 안 하고. 헤어지고 좀 일큰하게 돼가지고 악수하면서 헤어지자, 야, 우리 또 보자, 그러면서 악수하죠.

악수하는데 서로 돌아설 때 우린 두 번 다시 안 볼 거라는 것을 그 친구도 알고, 또 나도 알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돌아 나올 때 그 지하철 캄캄한 유리창에 비치는 내 얼굴을 보면서 어쩐지 부끄러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아, 그래도 아직까지 양심은 남아 있는 모양이구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여전히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바로 하나의 지하수처럼 그게 잠재적으로 있을 때 그런 것들에 희망을 걸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순원지로 삼을 수 있고 그럴 텐데..., 가만히 보게 되면 너나 나나 다 같이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인간형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걸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부끄러움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 ‘인식과’로 인한 정신과 신체의 분리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성경》에서 최초의 죄의 증거가 결국은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죄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상실, 자기의 그런 신체,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뭘니까? 결국은 분리현상이죠. 내가 둘로 나뉘었다는 거죠. 하나는 바로 신체라고 하는 이름의 나와 그리고 그 신체를 응시하는 그리고 신체를 대상화하는 바로 그런 대상이나 아니면 지시 같은 것들이 큰 범주에서 언어행위라고 보면 언어적 존재로서의 나와 그것이 분리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바로 과일 자체가 사과이지만 Apple이지만 그걸 인식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인식과. 인식행위 자체가 이미 내가 나를 알아본다, 고 하는 것은 참담한 사실, 현상이거든요. 어떻게 내가 나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럼 알아보는 나는 누구이고, 그리고 알아 보여 지는 나는 누구예요? 그러다보면 알아보는 나가 시각행위에 의해가지고 보는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되죠. 그렇죠? 시선 속에 시각행위 속에는 권력이 들어가 있고, 남녀관계도 그렇습니다.

여자는 끊임없이 보여 지는 존재이고, 남자는 끊임없이 보는 존재이고, 나아가서는 권력관계가 고착되어 버리면 여자들이 나아가서는 끊임없이 보여 지려고 애쓰고, 그렇죠? 이런 식이 되어버림으로 해가지고 그런 묘한 시선의 법칙들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바로 그거와 마찬가지로 시선 속에 보는 자는 언제나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으로 해가지고 내가 동시에 지배하는 사람이면서 지배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이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소위 정신과 신체의 분리죠.

그래서 정신은 언제나 신체를 응시하는 존재이고, 신체는 언제나 정신에 의해서 응시 당하는 그러면서 서구 정신사에서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신체에 대한 이중감정, 그래서 신체를 끊임없이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타부화시키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신체를 매혹의 대상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성스러운 대상으로 성화하는 그게 바로 여성을 대하는 남성의 이중적 시선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도 바로 벤야민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그런 문제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야민이 그렇게 에텐동산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벤야민의 경우에는 언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단 하나만의 타부를 주죠. 그렇죠? 저,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마라, 라고 한 것. 그리고 뭐든지 해도 좋아. 그런데 바로 그걸 따먹죠. 그렇죠? 그걸 따먹게 되는데 그

과일이 과연 뭐냐, 이겁니다.

인식과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나 라고 하는 것이죠. 벤야민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결코 인간은 바로 가질 수도 없고, 행사할 수도 없는 신의 언어라는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뱀이 그러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신처럼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언어론적으로 얘기하면 벤야민의 논리를 따르면 너는 단순히 네 언어 행위를 뭘 알아보는 그런 언어 행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언어 행위를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3교시: 벤야민의 언어철학

▲ 에텐의 비극-인간이 신의 언어를 찬탈함

그래서 신처럼 너는 無에서 有를 만드는 그런 언어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유혹이고, 그 유혹을 바로 하와가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아담도 따라가게 되고, 그런데 그거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아담이 따라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때도 여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는지 좌우지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구분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매혹은 또 어디서 생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해석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구절들을 흔히 지나가는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게 꼼꼼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결락 지점들을 우리가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제 일종의 the Construction에 그런 태도일 수도 있겠는데 밀착 독서를 해버리면 이 틈새가 생기게 되고, 이 틈새로 들어가서 한 번 휘젓고 나가면 바로 이 틈새를 봉합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의미 체계가 사실은 허구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한 그래서 그 밀착 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식의 그런 건데 《성경》에도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어느 텍스트나 그런 게 많은데 어쨌든 보게 되면 벤야민이 바로 이 에텐의 사건을 언어론 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그 에텐의 비극은 결국은 인간이 신의 그런 언어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소산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바로 그 아담의 언어가 바로 Naming하는 언어인데 명명언어인데 그 명명언어 이상의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조할 수 있는 언어, Realization할 수 있는 언어, 꽃이라고 쓰면 바로 꽃이 되어 버리는 그러한 창조언어를 바로 찬탈하려고 함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름언어가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 아담의 언어가 타락하는 과정

그 타락의 과정을 바로 벤야민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냐면 바로 인간이 무엇을 명명하는 게 이름을 통해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정신성을 드러내는 그런 언어의 행위를 한다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바로 신의 언어라고 하는 총체적인 어떠한 영역 내에 바로 인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신도 들어가 있고, 신이 아니라 사물도 동시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일종의 아우라권이 있고, 신의 정신성이라고 하는 아우라 권이 있고, 이 아우라권 속에 바로 인간도 들어가 있고, 사물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내재성, 신의 그 아우라권 속에 둘 다 소속돼 있는 이 내재성, 이 내재성 때문에 바로 인간이 이름 주는 행위를 통해서 바로 그 사물은 바로 이 내재성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대기의 정신성을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인간은 그 이름을 주는 행위를 통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신성을 바로 이 대기권 안에서 다시 드러내는 이런 관계가 바로 태초의 언어에 어떠한 그런 분위기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인간이 신의 언어는 바로 자신이 창조해 낸 이런 대기권 외부에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창조언어이기 때문에. 즉 밖에 있는 언어다.

이게 우리 벤야민 식으로 나중에 역사철학 속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메시아적인 것하고 그리고 역사적인 것은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역사적인 것이 메시아적인 것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 인간의 그런 힘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역사철학 얘기할 때도 벤야민의 역사가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역사가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다. 그건 메시아가 오고, 안 오고는 바로 그 역사가가 그것마저 결정할 일은 아니다. 또는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신의 창조적 언어는 이 창조된 것 밖에 있는 언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신의 창조언어인데 인간이 여기서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신의 언어를 찬탈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안에 있어야 되는 인간이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바로 신의 포지션을 자기가 가진 것처럼 혹은 가지려고 한 듯이 밖에 나와 있다는 거죠. 밖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네? 이 대기권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나온 사람은 대기의 호흡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대기의 호흡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더 이상 사물과의 소통 관계라고 하는 것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로 사실 변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똑같은 어떤 대기권 안에서 둘이 서로 호흡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 소통이라고 한다면 여기 밖으로 하나가 나와서 그 다음에 이 사물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이런 호흡관계로 상징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소통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뭘니까? 지시 관계로 밖에 변할 수 없다.

의미부여 밖에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이름언어가 왜 신의 언어를 찬탈하면서 그 것이 바로 본인이 이름 언어 속에 들어가 있던 사물과의 그런 소통 관계가 바로 그 언어행위를 통해가지고 다시 소외관계로 바뀌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 내재성을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재성을... 그래가지고 사물 따로 인간 따로 된다. 원래는 사물 따로 인간 따로가 아니었다.

바로 이 안에서 정신성이라고는 것을 통해가지고 서로 공유되는 그런 대기권의 존재들로 생각이 됐다면 하나가 빠져나옴으로 해가지고 나는 너하고 다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로 다를 수 없는 것이 다르다고 주장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관계는 그 이전에 있었던 동일한 그런 대기의 호흡관계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소통이 더 이

상 가능해지지 않는 그런 소외관계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바로 벤야민은 신이 창조언어인 이유는 Realization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언어의 타락 과정: Word-인간과 사물들 간의 소외

바로 그 신은 ‘되어라’ 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언어기능이 신에게 있는데 인간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언어행위를 찬탈했을 때 인간의 언어행위가 그렇다고 해서 ‘되어라’ 하매 되느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간은 Realization의 그런 언어를 되고자 했지만 기껏 될 수 있는 그 언어행위가 뭐냐 하면 소위 Knowledge다. 지식언어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지식언어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판단언어다. 판단언어는 아주 필연적으로 옳고 그름 소위 이분법을 떠날 수 없게 된다. 옳고 그름, 선과 악, 뭐 이것저것의 세계, 왜냐하면 모든 판단의 기능은 바로 어떠한 그야말로 판단은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유지시키려면 바로 그 기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두 개의 항이 있어야 돼요. 선이 있으면 바로 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선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는 거죠.

스스로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바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소위 그런 그 이분법의 논리라면 신이 Realization의 언어다, 그러면 신은 더 이상 이분법적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되라 하면 그냥 된 거예요. 되지 않은 것? 이런 것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신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인간이 밖에 나와서 바로 언어행위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을 때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혹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지식이라는 거다.

얇이라고 하는 것이다. 얇이라는 게 뭐니까? 대상화하는 거죠. 자기 신체를 알아보잖아요? 별거벗은 신체를 아담이고 하와고 알아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알아봄, 그 알아봄의 행위 밖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은 바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게 되고,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법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일체인 어떤 것이 어떤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대상화 돼서 소외된다는 거죠.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되어 버린다. 바로 그걸 의미한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벤야민이 볼 때 그것이 바로 명명언어에서 그 다음에 어떤 언어로 변하느냐? 그걸 바로 벤야민은 그 Word, 그러니까 단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단어의 발생이다. 이 과정에서 벤야민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단어라고 하는 것, 나중에 Sign이라고 하는 것을 또 구분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벤야민의 그 논리를 암묵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이 밖으로 뛰어나와서 Outsider가 되었지만, 사물들은 여전히 바로 이 대기 정신권의 대기성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라고 하는 전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물들의 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더 이상 유

지되지 못하는 인간과 사물들의 관계에서 태어나는 어떤 언어행위, 이게 단어예요.

▲ 언어의 타락 과정: Sign-인간과 사물의 소외 그리고 사물과 사물의 소외

그 다음에 Sign은 어떤 관계냐 하면 Sign은 바로 이것마저 소외되기 시작한다. 사물과 사물의 관계마저 소외되기 시작한다. 이게 Sign의 그런 벤야민의 의미입니다. 원래 신적 아담의 언어를 통해가지고는 인간과 사물이 다 같이 바로 소통이 되고 있는 관계의 언어행위라고 한다면 언어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사물들 간의 소외행위이고, Sign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사물들 간의 소외현상 뿐만 아니라 사물들과 사물들 사이마저도 소외되어 버린 그러한 관계로 벤야민은 이 언어의 타락을 설정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상태에서 바로 벤야민이 그 저기 뭐야, 선악과 문제를 바로 언어철학적인 문제로 치환시켜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바로 이 아담의 언어가 이 단어라고 하는 혹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개념의 언어라고 하는 것으로 타락하는 혹은 소외된 그러한 그야말로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 바벨탑 사건과 지시 관계로 타락한 아담의 언어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하는 그 다음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인데요. 바벨탑. 바벨탑은 뭐니까? 언어 혼란의 사건이죠? 《성경》에서... 그레가지고 인간인 나도 하나님의 하늘에 닿겠다, 라고 하는 오만으로 탑을 쌓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탑이 하늘까지 닿겠다, 라고 하는 그걸 내려다보는 신이 바로 그 바벨탑을 허물어뜨리죠. 허물어뜨리는데 단순히 탑이 허물어졌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어떠한 재난이 일어납니까? 그 형벌과 더불어서. 멀쩡하게 잘 서로 소통되고 있던 그 인간들이 바벨 그 주변의 인간들이 갑자기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질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언어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로 원래는 한 언어권에서 있었던 그런 종족들이 저마다 그룹을 지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저마다 새로 자기들만의 언어를 만들어 내게 되고,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가지고 바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언어와 언어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 지지 않는 그런 언어 혼란의 시기와 그 다음에 그런 종족 분산의 그런 현상이 바로 이 바벨탑의 그런 현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벤야민은 다시 단어가 Sign으로 건너가는 그런 현상으로 나름대로 설명을 해 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물과 사물의 관계가 바로 그 완전히 소외관계로 빠져나가는 이거거든요. 바로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이 신의 언어 無에서 有를 만들어 내고 있는 그러한 신의 언어를 자기 것으로 찬탈한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 그 다음에는 소위 의미생산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미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언어행위가 바로 그것인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뭐냐 하면 과거에는 그래도 하나의 단어가 제가 처음에 언어 철학적인 측면하고 기호론적인 것하고 구분을 말씀드렸습시다만 적어도

언어, 단어라는 그런 말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사물을 지시하는 그 언어 사이에 이 정신적인 사물들의 그 관계망과 인간의 언어행위 사이에 본질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우리가 벤야민의 단어라는 그런 이름을 타락의 초기 단계의 그런 단어인 아직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타락화 되지 않은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래서 벤야민은 아담의 언어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단어를 중시하는 그러한 그 텍스트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것을 본다면 바로 그 언어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는 사물을 떠나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즉 추상적 언어들이 개념들이 생겨나게 된다. 구체적인 물질적 근거가 있지도 않은 단어들이 태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들 중에 얼마나 실재하지 않는 것들을 지시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는 바로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실제적인 대상이 있지도 않은 단어가 하나 A 생겨나면 이것이 또 무엇을 지시하기 위해서 다른 허구적인 B를 만들어 내게 되고, 이 B는 또 C를 만들어 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언어행위라고 하는 것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언어행위로 완전하게 그 말하자면 재생산 구조가 돼버린다 이겁니다. 바로 그러한 언어행위 속에서 결국은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정말 인간은 無에서 有를 만들어 내는 신의 언어를 행사를 한다 이겁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막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벤야민 식으로 얘기하면 전혀 창조와 무관하다. 왜냐하면 벤야민에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정신성의 소통을 얘기하거든요. 정신성의 소통을... 그런데 이거는 뭘니까? 이 언어 기호들의 무진장한 재생산 구조는 뭘니까? 단순한 상호간의 뭘니까? 지시 관계일 뿐이에요. 상호간에. 나중에 롤랑 바르트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상호간의 지시 관계일 겁니다. 말하자면 자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호들의 무진장한 그런 그거를 바로 Sign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의미화의 구조. 그게 생겨난다는 거죠.

기호가 기호를 만들어 내고, 또 기호가 기호를 만들어 내고, 기호가 기호를 만들어 내고... 그러면서 그 만들어 내는 기호 사이에서 끊임없이 그 Signifiant이, 잠깐 말씀드리면 롤랑 바르트의 기호론을 따르면 이렇습니다. 모든 언어행위는 시니피앙(sa)이 있으면 시니피에(se)가 있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장미가 있으면 장미라고 쓰고 있는 Rose라고 쓰고 있는 이 철자로서의 그런 시니피앙이 있으면 시니피에는 장미가 이렇게 생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장미인데 그러나 이 기호로서의 기호적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미가 바로 실제적인 장미를 가리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sa-se) 파생되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 정열, 뭐 이런 것들. 예컨대...

◆4교시: 벤야민의 언어철학

▲ 롤랑 바르트의 기호론

우리가 장미하면 구체적인 대상으로서의 장미를 우리가 실제로 지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과 바르트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미하면 당연히 장미를 우리가 지시하지만 그러나 이 장미를 우리가 연상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그 과정 속에 결코 이것과 분리될 수 없는 무엇이 따라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의미다. 이거를 Connotation이라고 그래요. 공시적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르트의 기호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 그 단어는 다름 아닌 바로 그것을 지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많은 그것과 무관한 즉 생산된, 이 사이에서 생산된 바로 다른 의미들을 우리가 동시에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언어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시 관계가 아니라 의미관계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의미생산의 구조는 끊임없이 확장되는 관계다.

다시 말하자면 Signifiant과 Signifie가 만들어져서 관계가 이루어져서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게 생겨나면 바르트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시니피앙에서 시니피에가 있으면 여기서 소위 Meaning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다. 이게 기호구조예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예요. 이게 다시 시니피앙이 된다. 그리고 또 시니피에가 생기고 또 Meaning이 생겨난다. 그러면 이게 다시 시니피앙이 되고, 또 시니피에가 되고 또 Meaning을 만들어 낸다. 무한 재생산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구조주의적으로 바르트 식으로 얘기해서 구조주의적으로 거꾸로 한번 훑어보자. 훑어보면 마지막에는 결국 너무너무 단순한 구조다. 뭐냐면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와 그 사이에서 생겨나고 있는 Meaning, 이것 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재생산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의미라는 게 있다. 소위 의미. 이 의미가 우리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호 시스템이고, 우리는 바로 이 기호 시스템이라고 하는 수족관 속에서 끊임없이 기호라고 하는 춤을 추고 있는 그러한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르트의 기호론적인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폭파시킬 것이냐, 라고 할 때 바로 탈코드적인 게 바로 이 안에 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바르트의 텍스트론이나 이런 것들인데요. 그건 하여튼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롤랑 바르트가 말하는 ‘신화’- 기호 시스템의 사회

어쨌든 바로 벤야민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거의 다르지 않아요. 지금 뭐냐면 단어라고 하는 언술 행위 속에서는 이게 타락행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상과 관계는 있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호라는 것으로 건너오게 되면 구체적인 대상은 아예 없어지고, 자가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호가 기호를 만들어내고, 기호가 또 기호를 만들어내고,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구체적인 무엇인 것처럼 우리를 지배해요. 즉 그것이 바로 자연인 것처럼.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게 단순히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Meaning이라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구조에서 태어난 무수한 의미들의 어떤 재생산이 아니라 그게 우리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원래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걸 바로 롤랑 바르트는 신화라고 부릅니다. 신화. 그게 신화다. 바로 우리는 신화 속에 완전히 매몰돼 있고, 그리고 신화를 좀 좌파적으로 얘기하면 이데올로기죠. 의미의 이데올로기.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신화가 아니라고 그러면 오히려 막 미쳤다고 그러고.... 그거죠. 그게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Culture라는 거다. 그게 바로 문화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화인데 자연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어떠한 그런 기호 시스템의 사회, 그거를 롤랑 바르트는 신화라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신화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 벤야민의 두 가지 시선 - 멜랑콜리의 시선과 알레고리적 시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벤야민도 다르지 않게 바로 이 언어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더듬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언어에서 소위 선악과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언어타락과 그 다음에 그 언어타락이 지금 소위 이 시대에, 그 시대 바벨탑 이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언어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소위 자의적인 그런 기호적 소통 행위, 이거는 벤야민에 의하면 바벨탑 이후에 생겨난 그런 언어의 소외가 언어의 타락이 계속 되는 극점에 와 있다. 그게 또 벤야민에게는 모더니티의 문제예요. 제가 그 역사철학 할 때 벤야민의 천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현대성의 풍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끊임없이 파편화되어 가는 어떤 그런 풍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폐허화되어 가는.... 그건 일종의 언어의 폐허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그 천사가 그것을 응시하면서 바로 천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걸 어떻게 Reconstruction하고, Recomposition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야말로 구원하려고 하는가, To Rescue하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 그게 바로 벤야민이 나중에 좀 우리 도시철학이나 이런데 들어가면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바로 알레고리적 시선이죠.

한편으로는 완벽하게 폐허로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구원의 어떤 이미지로 바로 Reconstruction하고, Recomposition하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 시선이 바로 벤야민의 시선이라면 그 시선이 멜랑콜리 시선이면서 동시에 알레고리의 시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천사의 시선이 바로 그거예요. 역사철학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파울 클레(Paul Klee)의 ‘앙젤로스 노부스’ 라고 하는 시선이 바로 그 시선이고, 벤야민의 사진을 우리가 보

게 되면 대단히 침울한 그런 시선을 볼 수 있는데 알레고리적 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언어타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 알레고리 시선으로 보는 타락사

그러나 벤야민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결국 사물들은 인간의 내러티브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잡설, 이 잡설 속에 바로 묶여서 완전히 소위 그런 그 사물들의 어떤 그런 관계성의 폐허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이것이 언어타락의 비극적인 사건이고, 그것을 통째로 바치고 바로 인간과 언어 사이의 소외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나중에 도시철학에 가게 되면 바로 그 현대에 무수하게 생산되고 있는 이 상품들, 이 상품들과 바로 인간과의 소외 관계로 설명이 또 됩니다.

그래서 벤야민은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응시하면서 우리도 사실 길거리 가다가 이마트 이런데 가보면 무지 많잖아요? 뭐가. 무지무지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벤야민은 그걸 생각을 해요.

저 상품들이 본래 인간과 저 상품들에게 지금이라도 인간이 Naming을 하게 되면 그 이름 언어를 명명언어를 회복하게 되면, 저 상품과 나 사이에 정신성이 오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벤야민은... 그게 벤야민이 파리를 응시하는 시선입니다. 파사주(Passage)를 응시하는 시선이고요. 그래서 사물은 벤야민에게 단순히 소비제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물이라고 하는 말들이 파사주에 가면 바로 이 상품이라는 걸로 바뀌어 나가는데요.

바로 이 사물을 응시하는 사물에게 이름을 주려고 하는 벤야민의 언어회복의 어떤 그런 노력이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끊임없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 그게 뭐니까? 상품이죠? 벤야민이 모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모드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깊이 내재해 있다. 모드라고 하는 것은 역사철학에서 보면 양가성을 지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옛것들을 새것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그 모드인 반면, 동시에 모드는 다름 아닌 콜로세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투사의 그런 싸움과 비슷하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니까?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상품의 운명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운명이 인간의 운명과 다르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상품의 운명은 뭐냐 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새것을 재생산하지 않으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운동성을 지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은 새것으로 태어나지만 동시에 새것으로 태어나자마자 뭐가 됩니까? 낡은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산된다.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이미 죽어서 나온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무진장한 상품 재생산의 소위 그런 자연법칙입니다. 자연은 뭐니까? 자연은 생성, 소멸이 등과 배치됨 붙어 있는 게 자연 아닙니까? 태어난 것들은 전부 이미 소멸하게 돼 있죠. 우리가 그것을 못 알아보는 건 뭐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그래요. 느려서 그래요.

느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모더니티의 시간은 무지 빠른 시간인데 바로 그 현대성의 시간을

벤야민이 보면서 현대성의 시간은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목격할 수 없었던 자연의 시간이 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연의 시간은 느릿느릿 흘러가지고 그걸 Continu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속성 때문에 느릿느릿 흘러서 봄이 오면 우리는 봄이 전부인줄 알고 와, 꽃 폈다. 여름 되면 막 무성하니까 아, 이 생명력 어찌고저찌고, 가을 오면 또 바짝 또 쪼그라들어서 멜랑콜리 해지고, 겨울 오면 또 들어가 가지고 이불 속에서 안 나오고 있다가 봄 오면 또 봄 왔다, 이러지만 뭐니까? 그게 뭐니까? 봄 오면 이미 겨울이 이미 그 안에 내재해 있잖아요? 자연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등과 배다. 동전의 양쪽이다.

그런데 이걸 양쪽으로 보면 벤야민의 논리에 따르면 어떻게 멸이 없는 생이 존재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인간의 정신성, 그래서 이걸 서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만 서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자연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자연은 굉장히 귀중한 건데 병이 들었어. 죽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이후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자연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빼낼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생성이잖아요? 계속.... 그게 모더니티가 가지고 있는 진보의 허구예요.

진보의 이데올로기예요. 진보의 이데올로기가 뭐니까? 자연과의 싸움에서 나온 이데올로지죠. 다시 얘기하면 멸이 없는 끝없는 생산의 운동. 그게 소위 모더니티가 가지고 있는 진보라고 하는 시간의 바로 참 의미이죠. 그런데 벤야민이 볼 때 그렇게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에서 상품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죽는지를 보자. 자연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것도 아주 빠르게, 바로 아주 빠른 이 속도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진실을 보게 된다. 뭐냐?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살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죽음을 계속 생성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모더니티의 그걸 본다는 거죠.

상품들이 태어나자마자 금방 쓰레기가 되고, 그리고 또 태어나서 또 쓰레기가 되고, 이러한 것들. 그래서 벤야민이 바로 현대성은 자연사의 어떤 그런 극점이다, 라고 얘기 할 때 자연에 그대로 반복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현대성의 시간을 두고 벤야민이 보는 거는 알레고리적 시선이에요.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현대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뭐니까? 폐허예요. 뭐가 막 지어지지만 그건 이미 무너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멜랑콜리 시선으로 보는 반면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인식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바로 처음으로 역사적인 꿈이 생긴다. 다시 말하자면 뭐냐 하면 진정한 역사의 꿈이 생긴다. 즉 자연에 매몰된 그런 역사가 아니라 역사다운 역사, 라고 하는 거죠.

뭐니까? 자연을 극복하는 역사, 죽음이 없는 바로 그 역사, 그게 바로 원래 인간이 문명화를 이루고 그리고 역사를 만들었던 그 최초의 꿈은 원래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왜 그랬을까? 라고 물어보면서 결국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자연으로 퇴행한 것, 그게 바로 소위 문명이고, 역사다. 벤야민 보다는 아도르너가 더 강렬하게 그런 식으로 소위 계몽의 변증법이란 이름 아래 그 논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벤야민

도 큰 범주에서는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벤야민이 언어 타락사를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단순히 끝나서 벤야민이 멜랑콜리의 언어 타락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태, 내거티브에 그냥 머물러 있느냐, 그게 아니고 바로 벤야민의 특유한 알레고리적 사고와 사유가 나오죠. 즉 이름에서 단어로 단어에서 Sign으로 분명히 이건 뭐냐? 타락사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시선으로 알레고리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 타락사가 이름언어를 회복하는 바로 그 쓰여 지지 않은 텍스트이기도 하다, 라고 하는 거죠.

▲ 벤야민의 알레고리적 Reading

벤야민에게 독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쓰여 지지 않은 것을 읽기. 쓰여 진 것을 읽는 게 아니라 쓰여 지지 않은 것을 읽기, 그러나 쓰여 진 것을 동시적으로 읽으면서 라고 하는, 텍스트에는 벤야민에게 두 층위가 있다. 하나는 사실층위가 있고, 진리층위가 있다. 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사실층위만 읽어내는 것, 그거는 단순히 인포메이션만을 준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 사실층위와 더불어 바로 그 진리층위를 읽어 내는 것, 그게 바로 알레고리적 독서이다. Reading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알레고리적 Reading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벤야민이 바로 그, 그게 바로 변증법적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정지의 변증법이라든지 이런 의미로 얘기되고 있는 변증법적 독서의 그 행위를 얘기를 해요.

벤야민은 끊임없이 한편으로는 멜랑콜리의 시선으로 아주 래디컬하게 이 타락사를 응시합니다. 도시를 바로 폐허로 응시하듯이... 그러나 동시에 천사의 시선으로 그 알레고리적 시선으로 동시에 뭐냐 하면 바로 이거를 거꾸로 읽어내요. 구원사로 읽어냅니다. 이게 벤야민이 아주 독특한 그런 시선이구요, 그리고 우리가 벤야민의 여러 가지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 Logic을 아셔야지만 벤야민이 그 어떤 얘기를 텍스트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지를 나름대로 추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표층층위만 사실층위만 열심히 읽으시면 진짜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들 거예요. 대단히 힘들어요. 어떻게 쓰여 지지 않은 것을 읽어내겠는가? 일단 벤야민이 방법을 제시해요. 독서는 결을 거꾸로 거슬러서 읽기라고요. 표층층위를 거꾸로 읽어 나가기. 우리 거꾸로 읽어 나가는 그 방법을 통해서 바로 진리층위에 쓰여 지지 않은 진리층위를 바로 경험하기. 이게 이제 경험인데요, 바로 그런 식의 독서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문제로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언어철학사적으로 보면 언어 타락사를 점검해 내려가고 있다면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미메시스(mimesis)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타락사를 바로 구원사로 읽어내는 그런 독서가 이제 도대체 무엇이나,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인간학적인 그런 시선 행위와 연결 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벤야민의 언어철학을 두 개 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는 바로 이 언어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아담의 언어부터 Sign까지 쪽 거슬러 내려오는 측면과 또 하나는 미메시스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알레고리적인 그런 시선의 양 축입니다.